

광주시 추경, 시민 삶 살피고 미래 준비 전략적 재정 투입

상생카드 할인 등 꼭 필요한 분야 '핀셋' 대응으로 소비 활성화 AI산업 육성·저출생·복지·청년 지원·기후위기 대응 등도 지원

광주시가 탄핵여파 등으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집중한다.

광주시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일명 '핀셋' 예산을 추가해 올 하반기 시장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더 따뜻한 민생경제', '더 준비된 미래투자', '더 촘촘한 돌봄·공동체', '더 풍요로운 광주 실현' 등 4대 분야 48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 활성화와 서민 부담 완화가 가능한 예산을 추가했다.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광주상생카드 할인(134억원) 등의 예산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지원(24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40억원), 산업구조 고도화자금(100억원), 수출진흥자금(2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1억 5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1억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5000만원) 등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 등 주요 경제주체의 부담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역점사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미래 산업경쟁력과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도 확대한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AI산업과 기업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기반 컴퓨팅자원 지원(9억8000만원), K-헬스(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11억 1000만원), 호남권 AI융합 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3억 7000만원), 글로벌 AI컨퍼런스 개최(2억 6000만원) 등의 예산을 통해 AI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AI인프라 등의 확충으로 AI기업들이 광주로 발

길을 옮겨 지역 인재들의 고용 기회를 늘리고 AI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부품융합 실증테스트베드 구축(20억원), 전장부품 도장공정 자율제조 시스템 기술개발(1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해 지역 미래 산업의 또 다른축인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한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저출생 대응 예산과 복지·돌봄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안정 기반 구축에 산도 편성했다. 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적약자 지원,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등도 놓치지 않겠다는 광주시의 구상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억4000만원), 손자녀가족 돌보미(2억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 30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원(11억원), 영유아보육료(217억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1억 5000만원),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2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또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4000만원),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1000만원) 등의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센터 운영 지원(8000만원) 예산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하천 정비(9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해 재난 대응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도시보다 빠른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환경 인프라에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한다.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G-패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49억원)하고 영산강 인근 자전거마을 시범 구축(2억원) 예산도 준비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가와 같은 문학인을 배출하기 위해 '책 읽는 광주' 조성 예산도 포함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의 12월 완공을 지원(100억원)

하고, 하남시립도서관 개관(8억 1000만원)과 골목길 문화사랑방(10억 5000만원) 등이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일부 세입 증가분, 세출 절감액,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추경예산 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대통령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데 최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수해 대비 태세를 살핀 뒤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장소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조성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고개 숙여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장마철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재난 발생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안전 관리 부서는 대우도 별도로 기피 부서 비슷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박군택 의원 "특검 20일째 임명"

"특검의 정점은 윤석열·김건희 7월 10일 이전에 수사 시작"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법리스크를 방어했던 '광주 호위무사' 양부남(서구을)·박군택(광산갑) 의원이 12일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에 따른 특검 임명이 오는 20일째 이뤄질 것 등을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특검법이 10일 발표됐으니 아마 이달 20일 정도면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군에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고위직 출신인 물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의 정점은 결국 윤석열·김건희

이며, 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아무래도 깨끗한 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배제되면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군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다음 주 초에 임명이 되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면서 "아마 7월 5일 전후 준비기간이 끝나고 7월 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크고, 3개가 동시에 출범하다 보니 더 규모가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 특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후보군은 수사 경험과 팀을 이끌 리더십, 참여 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 능력을 가진 분들은 많지만 참여 의사를 갖는 분은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를 폐업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주요 쟁점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선 "표면적인 이유는 원내대표 선거일과 겹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쟁점 법안을 민생 사안보다 먼저 처리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민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먼저 하고 쟁점 법안을 뒤에 처리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 의도가 실린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3대 특검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큰 규모의 수사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데 따



양부남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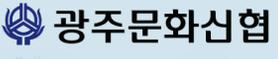
박군택 의원

른 우려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 의원은 "특검이 발효되면 돈이 들지만 국가의 중대 사안이기에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께서 민생과 통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과거 특검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이 맞다"면서도 "역대급 사건에는 역대급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